

생활과 윤리 선택지 문제 모음(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정보 사회와 과학 기술 윤리)

- 1.메타 윤리학은 사실 명제로부터 당위 명제가 연역 가능한지 탐구한다()
- 2.이론 규범 윤리학은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문화적 사실을 다룬다()
- 3.기술 윤리학은 문화, 사회 체제 등이 달라지면 도덕의 내용도 달라진다는 점을 수용한다()
- 4.규범 윤리학의 주요 탐구 과제는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 5.응용 윤리학은 인접 학문과의 연계를 배제하고 단일 분야를 중심으로 도덕 문제를 탐구한다()
- 6.칸트의 의무론은 자연법 윤리와 같이 인간이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로 본다()
- 7.자연법 윤리를 주장한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인간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법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본다()
- 8.덕 윤리에 따르면, 우리는 추론과 숙고를 배제하고 적절한 성향, 동기, 감정에 따라 선을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 9.밀에 따르면, 인간의 인식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 10.담론 윤리를 주장한 하버마스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도덕규범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본다()
- 11.자발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지만 환자의 고통이 심할 경우 가족과 담당 의사의 결정에 따라 안락사를 시킬 수 있다고 본다()
- 12.장기 분배의 정의를 위해서는 조직 적합성이나 대기자의 위급성보다 대기 순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13.패스모어는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태 윤리를 요청해야 한다고 본다()
- 14.슈바이처는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다()
- 15.레오폴드는 인간이 자연 전체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지녀야 한다고 본다()

16.칸트와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본다()

17.레오폴드는 윤리적 고려의 대상을 무생물에게까지 확대한다()

18.레오폴드의 관점은 생태계 안정과 유지가 최상의 목적이므로, 이를 위해 개별 생명체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19.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와 온건한 생태 중심주의는 모두 지속 가능한 발전, 녹색 성장 등에 합의할 수 있다고 본다()

20.하이데거는 과학 기술을 참 또는 거짓의 인식론적 대상일 뿐이라고 본다()

21.과학 기술의 가치중립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과학 기술이 객관적 관찰과 실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 없다고 본다.

22. “과학 기술에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과학자의 연구 활동은 사회로부터 독립적인 것이라고 본다()

23.과학 기술의 가치중립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과학 기술은 윤리보다 상위 개념으로 윤리가 과학 기술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24.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 해결은 개인들의 윤리관 확립만으로 가능하다 ()

25.사이버 공간의 특징 중 하나인 익명성으로 탈억제 효과가 발생한다()

26.정보 사유론자들은 지적 재산이 이익을 위한 금전적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